

석유제품 가격 상승세 지속

휘발유 가격이 2주 연속 상승했다.

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, 6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의 무연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리터당 6.4원 오른 1918.4원을 기록했다.

휘발유 가격은 2010년 10월 첫째 주 이후 26주 연속 상승했고 정유기업들의 공급가격 인하 방침(4월7일)에 힘입어 4월 둘째 주에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(4주)과 하락(4주)을 반복한 후 6월 중순 이후 하락과 상승을 반복했다.

자동차용 경유도 리터당 10원 오른 1741.3원으로 2주 연속 상승했고, 실내등유 평균가격 역시 1.7원 상승한 1353.2원을 나타냈다.

석유제품 판매가격 변화

(단위: 원/ℓ)

구 분	2010	2011.5	6.1주	6.2주	6.3주	6.4주	전주대비
보통 휘 발 유	1,710.4	1,938.5	1,914.5	1,911.1	1,912.0	1,918.4	↑ 6.4
자동차용 경 유	1,502.8	1,772.9	1,733.8	1,729.4	1,731.2	1,741.3	↑ 10.0
실 내 등 유	1,076.0	1,362.4	1,352.5	1,350.2	1,351.5	1,353.2	↑ 1.7

휘발유 가격은 서울이 리터당 1993.6원으로 가장 높았고 제주 1935.0원, 인천 1935.0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광주 1896.3원, 전남 1898.5원, 전북 1898.8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.

6월 셋째 주 정유기업의 휘발유 공급가격은 전주보다 리터당 14.1원 오른 875.6원을, 경유는 23.7원 상승한 958.2원을 나타냈다.

그러나 IEA(국제에너지기구)의 비축유 방출 결정에 미국의 주요 경기지표 악화 등으로 국제유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7월 들어서는 주유소의 판매가격 하락이 불가피해지고 있다.

다만, 국내 정유4사의 리터당 100원 인하가 7월7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변수가 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11/06/27>